

- [교회 표어] · 은혜충만 · 진리충만
- [교회 3대 목표] · 세계선교 적극화 · 일천교회 설립 · 전성도 성령충만
- [성도생활의 목표] · 전도와 봉사에 힘쓰자 · 모이기를 힘쓰자 · 성도다운 교양과 품위를 갖추자



은혜와진리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 ◆ 각 나라별 선교회

구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전	안양, 산본, 포일, 부곡	수원, 영통, 진위, 진원, 동탄, 안중, 평택, 용인, 남양, 을지, 전주요자	안산, 시화, 시흥, 인천, 부천, 부평, 영등포	과천, 판교, 강남, 구리, 광주	광명, 영등포, 원주, 천안	일산, 김포, 장유, 전주평화	수원, 양주, 서산, 당진	수원, 대구, 세종
연락처	T:031-448-1793 T:031-443-3731~2 (주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T:031-487-1397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콤파이어							

- ◆주요선교업무
- IMCR (International Ministries & Church Revival Conference: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회의) 세미나 개최 및 회보 발행
  - 문서, 방송선교 지원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 세계선교연합회 소식지 발간
  - 각 지역 선교센터 설립 운영 지원
  -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교회 해외 선교행사시 동참
  - 당회장 목사님의 외국어 설교집 발간
  - 본교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홍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

# 교회 공식 “카카오채널” 오픈!

-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은혜와진리교회” 를 검색하여 추가하시면 주일 예배 설교와 교회 주요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서 카톡 친구들에게 간편하게 설교 영상을 공유할 수 있어 전도에 활용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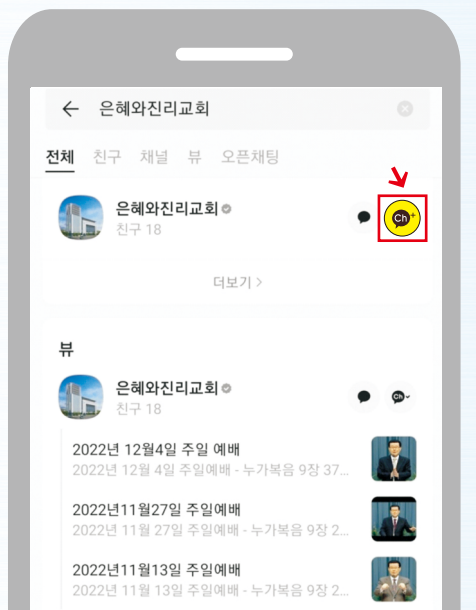
## <채널 추가 방법>



## 1. 카카오톡 친구 찾기 돋보기를 누른 후 “은혜와진리교회” 검색



## 2. 검색하여 나온 은혜와진리교회 우측의 Ch+ 버튼을 눌러 주기만 하면 됩니다.



#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교회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당로 866(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원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회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편부면 오성미로길 30 T.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령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경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2번길39-11 (광동동) T.055-312-3731
- 웅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헛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41번길30 T.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창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재운동) T.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054-772-86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병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흥1길 36 (옥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 전북 정주시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

# 은혜와진리소식

2023년 4월 16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22호 1982년 8월 8일 창간

##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나...”

- 황정연 -

2020년 1월 2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군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섬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것처럼 복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비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진 크리스천 병사들과 간부에게 성경적인 바른 신앙관을 가지도록 깨우쳐주는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군부대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주셔서 저는 새벽기도를 위해 제일 먼저 교회당의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린 후에 마지막 성전의 뒷정리를 하고 문을 닫으며 봉사하였습니다.

또 저는 이발병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병사들의 머리를 깎을 때마다 저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 말씀 테이프를 틀어 놓아 병사들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2백명이 넘는 부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역하던 날에 저는 많은 후임병들 앞에서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마지막 말로 간곡하게 권면하였습니다. 이처럼 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역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많이 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사랑하는 은혜와진리교회로 돌아가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역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GNTC-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리는 온라인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제대하면서 교회에서 예배와 봉사에 힘쓰는 생활을 하기로 굳게 다짐하였고 또 새로 청년구역장 직분을 맡아 아직 구역 청년들과 영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 초기 당회장 목사님께서 주일에 연속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사람들에게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은혜로운 설교말씀 중에 “나병환자”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 정결의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가 처한 상황과 대비시켜 깊은 감동과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완치된 나병환자는 제1차 정결의식을 행함으로써

진영 내로 들어올 수 있었으나 곧장 자기 장막,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없고 7일 동안은 장막 밖에서 머무른 후 제1차 정결의식에 이어 8일 후에 제2차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는 회복과 시작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감화되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의 신앙상태를 성찰하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직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고 온라인으로 드러지는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예배가 유익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홀로 예배에 집중하며 설교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장소가 어디이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영육 간에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더욱 앙망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한 사명감이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와 함께 교회당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더없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가고 가슴 벅찬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여 성도님들의 예배를 위해 성심성의껏 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역과 청소,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의 체온 측정과 예배석 안내 등 봉사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저의 의지와 열심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성령님께서 저를 섬기는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저는 특히 우리 교역자님들의 헌신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가 올 때도, 바람이 거세게 불 때도, 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릴 때도 그 어느 때나 교역자님들은 항상 맨 앞에서 성도님들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남성봉사연합회와 여성봉사연합회의 집사님과 장로님들의 봉사하는 모습 또한 저의 눈에 전과 달리 뚜렷하고 아름답게 비추었습니다. 고된 봉사 중에도 저의 청년들 앞에서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던 분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저는 큰 충격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제가 섬기는 자인 줄 알았으나 아니, 섬김을 받는 자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청년 성도로써 과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속해 있는 청년 봉사부서를 넘어 교회 전체를 보도록 저의 시야를 크게 넓혀 주셨습니다.

설교말씀에 감화 감동되고 봉사를 하면서 은혜를 받아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 또한 충만하여졌습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전도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훈련소 동기와 연락이 닿아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불신자인 그가 놀랍게도 죄의 문제로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연락을 지속하며 우리 교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꾸준히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다고 가족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은 대대로 우상숭배를 하는 집안입니다. 그를 전도하는 과정에서 저는 바울 사도가 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고전 2:1) 한 말씀의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음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혼란스럽고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모든 유익의 근원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 중의 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변함없이 매 예배시간에 은혜로운 말씀을 주신 당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내에 환자가 급증하던 어느 주일 마지막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빈 자리가 많았는데 목사님께서 중단하셔서 변함없이 예배식을 향하여 미소를 지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때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평소 그 자리에 앉아 예배하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의 모습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섬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평소 그 고마움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일상의 행복,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밖을 자유롭게 활보하지 못하면서 자연의 변화와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였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한복음 4:23)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은혜와 진리의 설교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도록 그동안 저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시편 1:1,2) 아멘.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12장 51절~13장 9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375장(새찬송가 331장)

# “누가복음 12장 51절~13장 9절 강해 설교”

서 오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에베소서 2장에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엡 2:13-17) 하였습니니다.

신자들을 가리켜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자들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는 ‘이전’보다 ‘이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함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라는 대답입니다. 설명을 부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흘리신 피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매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단에서 잡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속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이 피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수직적 화평’과 ‘수평적 화평’을 얻게 하셨습니다. ‘수직적 화평’이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된 죄인들을 위하여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늘그막에 낳은 외아들이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간 후 여러 해 소식이 두절되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가 몸져눅더니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신문문에 이 사실을 알리는 광고를 내었습니다. 이를 본 아들이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한 손은 아들의 손을 잡고 다른 손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두 손을 끌어당겨 가슴 위에 포개어 엮고 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께 잘못을 빌었고 부자가 화해하여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 된 자리에 있는 인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화목하게 됨은 어떤 비유로도 온전하고 흡족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평적 화평’이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차별이 철폐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1.5미터의 높이로 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 막는 돌로 쌓은 담이 있었습니다. 입구에 이런 경계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여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분과 제한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 화평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대속되는 일이 있어야 하고, 예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해야 합니다. 이 날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정한 수가 차기까지 복음전파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 한 이로 인한 분쟁과 박해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에는 그로 인하여 직면하게 되는 어떠한 분쟁과 분리, 곤란과 박해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각오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54절에서 5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난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팔레스타인의 지리적 조건에 따른 기상 상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습도가 높습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올 징조이므로 비가 올 것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열도가 높습니다. 남풍은 날씨가 더워지게 될 징조이므로 더위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고는 실제가 됩니다. 유대인이라면 어릴 때부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예언의 핵심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들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어느 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바로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다른 부류는 흑세무민하는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박대하였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라고 예수께서 질타하셨습니다. 외식이란 노릇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실상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온전히 아는 것으로 자부하였던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에 예언된 시대의 징조를 유심히 살렸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에 의하여 메시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57절에서 5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나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 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지가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징조를 살피고 시대를 분별하여 구세주를 믿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자신이 행한 불법과 불의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미화할지라도 고소를 당하여 법정에서 되던 대로 드러나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갚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호리’는 유대인의 가장 작은 화폐단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겨서 범한 죄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멸망에 처하게 되는 죄가 됩니다. 자신의 죄는 비교적 작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입니다. 바윗돌이든 조약돌이든 호수에 던지면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심판을 면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마치 고소당하여 재판받기 전에 해결해야 하듯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로 가는 동안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에 해결을 보면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을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할 수 없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죄 사함 받아 의롭게 되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더 할 나위 없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1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땅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식민지 통치자인 로마 총독은 유대인 특히 저항의식이 강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어떤 유월절 제사 때에 3천 명의 유대인들을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들처럼 학살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유대인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전하기를 “총독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단의 갈릴리 사람들에게 군인들을 보내어 무자비하게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은 연고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간파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한 예를 들었습니다. 실로암에서 땅대가 무너져 열여덟 사람이 치어 죽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당한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재난 당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는 증거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재난의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범죄한 당사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① 아담 하와에게 내리진 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탄의 꾀에 빠져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징벌하셨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벌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7-19) 하였습니다.

② 노아의 여덟 식구 외의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기록되기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 때에 온 땅이 하나님께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니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적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창 6:9-14,17) 하였습니다.

③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에게 내린 갖가지 징벌이 있습니다.

④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의 직무 유기와 방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⑤ 자기과시가 지나쳐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어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⑥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에 상반되는 주장으로 백성들을 그릇된 결정을 내리도록 한 열 정탐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⑦ 하나님의 위임권위를 무시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발한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⑧ 하나님의 금하신 법을 어기고 언약궤에 손을 얹은 옷사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둘째, 개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지도자의 악행에 대한 징벌이 다수의 사람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대항하는 애굽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열 가지 재앙을 당한 애굽 백성들이 있습니다.

② 모세를 대항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함께 생매장당한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③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탐심을 억제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전리품을 훔친 아간이 징벌 받을 때 함께 처형당한 그의 가족이 있습니다.

④ 다윗왕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인구 조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여 죽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개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지도자의 악행에 대한 징벌이 다수의 사람에게 미친 경우입니다.

셋째, 천재지변과 전쟁 그리고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목숨을 잃거나 큰 피해를 당하는 각 사람의 경우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기치 못하고 원치 않는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추적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영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의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갑작스러운 영광에 이르게 하고 순식간에 회멸과 평안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이 된 모든 일들과 상처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데 지장을 주는 일이 아니면 여윌을 가지고 너그럽게 처신하라.”는 말은 명언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예수께서 두 번 역설하셨습니다. 대단히 중대한 뜻을 가지고 있음이 강조된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회개치 아니하면”이라는 말과 “망하리라”는 말은 어떤 특정 사건과 대상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음”이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그 영혼이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죽은 후에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게 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어나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나 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 포도원 지기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나 다른 유실수를 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대체로 무화과나무는 길가나 거친 땅에 심겨지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포도밭에 심겨졌으니 택함 받아 비옥한 땅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열매를 거둘 시기가 되면 매년 와도 헛걸음하곤 하였습니다. 3년째도 그 모양이니 주인이 관리인에게 “무화과나무를 잘라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반발한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느냐”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리인이 대답하기를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무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화과나무를 제거해 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선인이 되고 율법과 예언을 받았습니니다. 좋은 땅인 포도밭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보배롭고 귀중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에는 영광스러운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 신령한 지식을 따라 살며 이를 만백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특권을 이방인에 대하여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을 차별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였습니다. 비유에서 말한 3년이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충분히 오랜 세월 참아 기다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있었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다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박해로 인하여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습니다. 세베란 집사도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습니다. 신자들이 이방나라들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렸으나 대다수의 백성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찍히고 베임을 당하는 비극을 당하였습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의 공격을 받아 성벽과 성전이 해체되고 성읍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세계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할 바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포도원에 심겨졌습니까. 신약약성경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특권에는 따르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행하며 성경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교회가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복음전파에 힘쓰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율법과 예언을 그들의 전 유물로 여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인 이스라엘이 찍히고 베임을 당한 것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항상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 전도, 봉사, 예물드림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으로써 오류가 없음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신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신자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날이 갈수록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